

2023.04.26. [라운드테이블] 나는 신이라는 다르지 않았다: 재현의 윤리와 저널리즘을 고민하다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발제1. 성폭력,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선정성이 아니다

류벼리¹⁾(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 들어가며

〈나는 신이다〉는 자극적인 영상으로 불러진 관심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는 착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착시는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지켜야 한다는 분노가 가시화되면서 이전에 없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같이 보인다. 이런 상황을 보며 조성현 PD는 “변화를 만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는 인터뷰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찰, 이유 있는 분노,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성폭력과 그 해결 과정에서의 ‘부정의(injustice)’를 감각/인지할 수 있는 평균적 감수성 자체를 높이는 것²⁾”이 필요하다. 〈나는 신이다〉는 성폭력 해결을 말하려고 했다지만,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성폭력의 연쇄 고리를 실질적으로 과연 무너뜨렸는지 질문하고,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1.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재현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성폭력사건 해결의 시작을 막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회복과 사건해결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자신이 입은 피해가 성폭력임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제 피해를 성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남들에 비해서는 작은 피해인데 왜 저는 힘이 들까요?”라고 묻는 내담자들이 있다.

자극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더 ‘중요’하고 ‘큰’ 피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작고’ ‘중요하지 않은’ 피해가 있다는 위계가 생긴다.

〈나는 신이다〉 연출자는 언론인터뷰에서 “지금도 그 영상 자체를 부정하기에, 조작인지까지 시청자들이 살펴달란 의미”로 피해사실들과 그 영상들을 공개했다고 말한다. 가해자와 그를 옹호

1) 발제문 작성을 위한 논의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류벼리, 박영지, 이소희, 이운소, 정서진, 최원진이 함께하고 류벼리 활동가가 대표 작성함.

2) 전희경,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p.12

하는 집단이 가해사실을 순순하게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을 반박할 곳은 수사과정 안에서지, 대중들의 심판대가 아니다. 피해사실이 대중들에게 드러날수록 성폭력 피해의 '위계'에 대한 예민함은 더욱 커져, 그 결과로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의 시작을 밟기 어려워진다.

여태까지 정명석의 가해행위들이 공개되지 않아서 피해가 반복됐던 것이 아니다. 2023년 4월 22일에 방영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명석 구속 전까지 JMS를 취재해온 PD는 "정명석의 구속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다."고 인터뷰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정명석의 악행만을 집중한다고, 정명석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피해가 끝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나는 신이다>는 다시 그 방식을 반복했다.

2) 성폭력 보도의 윤리성에 후퇴를 가져오다

<나는 신이다> 연출자는 '선정성 논란'에 대해서 "선정적이라는 문제의식은 존중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제작 의도에서 모자이크 장면으로 '신도에게 몯쓸 짓을 했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사실적 내용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8년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서는 "가해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몯쓸 짓', '나쁜 손', '몰카', '성추문' 등) 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연출자는 피해장면에 모자이크 효과를 주는 것이 '가해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 프로그램의 자극성은 단순히 피해장면을 모자이크하지 않고 드러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출자의 말대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룬 전반적인 작업을 뜻한다. 위의 실천요강 중 다른 항목을 살펴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를 그러한 자극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자로 연상,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의 전반적인 내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연출자는 자신의 연출방식이 가해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이것이 사건해결의 실마리로 작동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얼굴을 공개한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인스타, 대역, 근황이 뜨고, 네이버 지식인에는 "나는 신이다 jms에 나오는 분 진짜 본인이에요?"라는 질문이 남겨있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서 그것이 해결과 연결됐다고 하기에는, 관심의 방향이 사건의 구조와 권력의 작동이 아닌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질문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방송이 나간 뒤 많은 언론사가 앞다투어 기사를 냈다. 하지만 기사들 역시 또 다른 선정성을 재생산하고("JMS 정명석, 성폭행→성기 본뜨기...女신도 정상납한 정조은은 누구" - 스포츠투데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옥서 모녀 사진받은 정명석 '딸 가슴 크니 관리 잘해라' 답장" - 중앙일보)

2022년 7월 인하대 성폭력·사망사건 이후에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피해묘사를 한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졌고, 이에 대해 언론계 내의 자성의 목소리가 퍼졌다. 일부 매체에서는 기사를 보도윤리에 맞게 다시 작성하거나, 보도에서의 잘못을 사과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는 '알 권리'와 '특종'이라는 말로 용인돼왔던 성폭력 보도에서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를 고민하는 보도로의 일보전진으로 보였다. 하지만 <나는 신이다>는 이를 다시 후퇴시키고 있다.

2. 구조에 기반한 폭력이 아닌 ‘스토리’로 감각

주로 범죄사실을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은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재연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세팅된다. 해결되지 않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거나, 극악한 여러 사건에 서사를 부여하여 재연 및 인터뷰와 함께 보여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제 사건을 ‘흥미롭게’ 구성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시청자는 잘 짜인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느끼고 소비한다. 시작은 시사교양프로그램이었지만, 현재는 예능에서도 실제 범죄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많아지는 경향에서도 범죄와 ‘흥미’가 연결돼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신이다>는 다큐멘터리 장르로서는 처음으로 넷플릭스 통합콘텐츠 1위를 했고, 그 이후 JMS를 소재로 방영한 ‘PD수첩’, ‘그것이 알고싶다’는 시청률 고공행진 중이다. 성폭력 사건이 시청자의 ‘흥미’를 끄는 ‘스토리’로서 사용될 때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1) 구조 없이 나쁜 가해자만 집중하는 이야기들

<나는 신이다> JMS편은 정명석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해자의 악랄한 행위를 재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관련 문건에 하이라이트를 그으면서 보여주는 행위는, 오히려 가해자를 특수하게 만들고 악마화를 시키는 방식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피해자가 그 피해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명석이 수감됐음에도 피해가 추가적으로 일어난 이유, 피해가 몇 십 년간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시청자 눈에 ‘악마’같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게 되고, 성폭력이 일어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성폭력 피해를 겪고 그 조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공동체에서 이미 관계와 세계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공동체 구성원은 그 안에서의 룰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는다. 종교집단은 특히나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핵심으로 작동된다. 그곳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믿음을 거두게 됐을 때 사라진다고 느끼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대한 마음과 신앙에 바친 세월과 자원, 그 안에서 구축한 관계망 등이다. 특히나 이 공동체 내에서 정명석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으로 서술이 끝났을 때, 이는 가해자를 제외한 모두를 관객으로만 만든다. 이 상황을 함께 바꿔나가야 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게 된다. 가해자의 중요성을 낮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2)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특이한’ 일

‘사이비’ 단체는 대중들에게 ‘원래 이상한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구조에 대한 지적없이) 범죄의 악랄함과 합쳐지자 이 사건은 ‘특이한’ 일로서 인식되고 있다. JMS 성폭력 사건은 ‘사이비’라서 벌어진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 권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가 성폭력이다. 교수 1인에게 많은 권력이 부여된 곳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명확하게 권력구조가 나누어져 있고, 소수의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곳은 비단 ‘사이비’종교집단뿐만이 아니다.

종교 내 이슈를 다루는 매체인 ‘뉴스앤조이’에서 가해 목회자 259명의 성범죄 판결을 분석해서 기록한 [거룩한 범죄자들]이라는 기획기사에서 “성범죄는 ‘이단’과 ‘정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다.”고 설명한다. 교회 내 성폭력 역시 친밀감과 목회자가 가지는 권력, 상대의 취약함을 이용해 범죄가 발생했다. 교단에서는 성범죄가 벌어져도 침묵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가해자는 계속 목회 활동을 계속 했다. ‘정통’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다.

이 방송의 목적이 ‘진짜 해결’이었다면, 성폭력이 일어난 구조와 방식을 설명하며 성폭력을 일으키는 구조적 요인은 우리의 현실에 다양한 방식으로 녹아들어있다고 말했어야 했다. 우리에게 남겨야 할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폭력 사건 후에 무엇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지, 우리 공동체라면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하는지와 피해자 회복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이다.

3. 나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알려야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는 감각은 미투(#MeToo)운동 이후 한국에 새겨졌다. 오달수의 성폭력을 알렸던 피해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얼굴을 공개하고 나서야 대중들은 그의 피해를 인정했다. 얼굴을 알리기 전에는 사건해결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지 못 할 것 같다는 불안이 피해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다. 얼굴이 드러나야지만 피해를 신뢰하는 우리의 감수성을 재고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피해, ‘가짜’ 피해를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며 부정의를 인식하는 감수성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의 감수성을 평균의 감수성으로 끌어올림에 있어 <나는 신이다>는 과연 그 역할을 해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가톨릭 교단 내 성폭력 사건을 ‘보스턴 글로브’ 스포트라이트 팀이 폭로한 실화를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 중 한 장면을 공유하고 싶다. 취재 중에 성직자들의 성폭력과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한 기자가 다른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먼저 보도할 수도 있으며 “쓰레기들을 잡아넣어야죠.”라며 보도를 밀어붙이자, 선임은 “체계를 파헤쳐야 한다.”며 보도를 막는다. 충격적인 사건을 모으는 것, 그 사건을 제일 먼저 보도하는 것,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 이런 것은 언론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성폭력과 그 해결 과정에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다.

▶발제 속 작은 질문◀

- 단어사용의 문제

“성폭력 사건을 어떤 공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발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미 투쟁이다.”³⁾ 악한 개인에 의해 벌어진 ‘기행’ 정도가 아니라 하는 것, 이 피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가해자가 권력을 이용해 빼앗은 사건이라는 인지를 넓혀가는 과정이다. 의미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콘텐츠 안에서는 ‘성피해자’라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소개한다. 성피해자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정명석은 교주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 ‘성피해자’라는 용어를 ‘성과 관련한 피해’라고 풀어서 생각했을 때, 지위지는 것은 가해자의 존재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차에서 일어난다는 성폭력의 특성이다.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성’이라는 단어는 ‘성추문’, ‘성문제’라는 단어들과 결합되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소비될 것 같은 가벼움을 만든다. 여기에 자극적인 장면들이 겹쳐지면서, 이는 더

강화된다.

모니터링 결과 제작진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단어를 자막에 노출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공개롭게도 이는 실제 형사처벌이 확정된 건이다. (5:24-5:00 1999년 성폭행 및 남치피해자 황 모씨 진술조서) 제작진은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사법체계에서 ‘인정받은’ 피해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전에도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성피해’라는 말로 범위는 넓히고 문제의식은 불투명하게 정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발제2. 〈나는 신이다〉는 왜 넷플릭스를 선택했을까?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1. 〈나는 신이다〉 모니터링 결과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⁴⁾를 공개했다. MBC가 2년에 걸쳐 제작했고, 제작비를 지원한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넘겼다. 〈나는 신이다〉는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집계한 글로벌 TOP 10 TV(비영어) 부문 순위에서 5위에 올랐고, 국내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순위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⁵⁾ 흥행과 함께 선정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특히 정명석의 성폭력을 다룬 1~3회에서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묘사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선정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나는 신이다〉 1~3회를 분석했다.

회차	에피소드 제목	내용
1	JMS, 신의 신부들	예언과 치유력을 내세워 수천 명의 신도를 모은 정명석. 그러나 과거 정명석과 가까웠던 여성들이 어두운 진실을 폭로한다.
2	JMS, 적색수배 메시아	성폭행 관련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정명석은 해외로 도주해 활동을 계속한다. 한편, 그와 대적인 사람들은 폭력적인 보복에 직면한다.
3	JMS, 전자발찌 메시아	중국에서 체포된 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 정명석. 그가 석방된 지금까지도 전 신도들은 충격적인 범법 행위가 계속돼 왔다고 폭로하는데.

▲ 프로그램 소개 (출처: 넷플릭스)

① 실제 피해 음성, 영상

〈나는 신이다〉에는 피해 상황이 담긴 음성, 사진, 영상이 수차례 등장했다. 자세한 장면의 시간과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JMS를 다룬 세 개의 에피소드에서 피해자 메○○의 피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2번, 다수의 피해자가 나체로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 2번, 다수의 피해자가 등장하는 목욕탕에서 촬영된 영상은 3번 등장한다. 일명 ‘홍콩 X 파일’에 포함된 나체, 비키니, 원피스 차림의 피해자 사진도 여러 장 보여지고 있다.

메○○의 피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 “성 피해자 메○○은 자신이 당한 피해가 다른 여성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녹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22년 9월 현재 JMS 정명석은 둘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막을 보여준다. 이 음성 파일은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1분이 넘는 분량으로 다시 한 번 공개된다. 이때에도 “이 녹음은 성 피해자 메○○이 직접 녹음한 것으로서 피해 당일 월명동 (JMS 본부)에서 녹음 뒀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하에 내용을 공개합니다.”는 자막을 보여준다.

4) 이 글에서는 〈나는 신이다〉에서 JMS를 다룬 1~3회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5) '나는 신이다', 글로벌 열풍 분다...K-다큐도 세계로 (YTN, 2023년 3월 15일)

회차	시간	내용
1회	00:25-01:00	메○○이 제공한 성폭력 피해 상황 녹음 파일(1번째)
	03:11-03:27	다수의 피해자가 등장하는 목욕탕에서 촬영된 영상(1번째)
	39:50~40:10	다수의 피해자가 등장하는 목욕탕에서 촬영된 영상(2번째), 다수의 피해자가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1번째)
2회	22:53~23:07	바닷가에서 춤을 추는 다수의 피해자, 정명석의 사진을 훔는 피해자(1번째), 나체에 포도를 들고 있는 피해자
	25:11~25:26	홍콩 X 파일 사진, 나체의 피해자, 비키니 차림의 피해자 등 여러 장의 사진
	25:41~26:24	나체 혹은 비키니 차림으로 춤을 추는 장면, 정명석의 사진을 훔는 피해자(2번째), 나체로 누워서 정명석에게 멘트를 하는 장면, 다수의 피해자가 등장하는 목욕탕에서 촬영된 영상(3번째),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 다수의 피해자가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2번째)
	28:39~28:46	홍콩 X 파일 사진, 비키니 차림의 피해자 사진 여러 장
	33:11~33:39	정명석이 홍콩에서 체포될 당시 촬영 영상,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등장
	36:19~36:25	중국에서 실제 촬영된 영상, 정명석에게 안마를 해주는 여성과 정명석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다수의 여성이 등장
	40:51~41:27	크리스마스 파티 실제 촬영 영상, 비키니 차림, 슬립 차림 등의 다수의 여성 등장
3회	17:09~17:18	수감 중인 정명석에게 보내진 메○○의 사진
	32:46~32:52	메○○의 자해 상황 사진
	39:59~41:06	메○○이 제공한 성폭력 피해 상황 녹음 파일(2번째)

② 재연

성폭력을 자세히 보여주는 연출방식 중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은 ‘재연’이었다. 피해자가 증언하거나 사건 관련 문서를 통해 드러난 피해 사실을 대역에게 연기하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 정명석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 수감 중인 정명석에게 보낼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 등 적나라한 피해 사실을 드라마처럼 연출했다. 특히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중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재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폭력에 사용된 도구까지 보여주며 과도한 재연 장면을 연출했다. 재연 장면의 시간과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음성과 텍스트로도 피해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재연을 가미한 것,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피해사실까지도 재연한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연출이다.

회차	시간	내용
1회	28:55~31:01	피해자 김지은(가명) 피해 재연
	33:48~37:06	피해자 이윤주(가명) 피해 재연
	47:27~47:48	피해자 이윤주(가명) 피해 재연
	49:25~49:42	피해자 이윤주(가명) 피해 재연
	49:52~50:05	피해자 이윤주(가명) 피해 재연
2회	01:51~03:09	폭행, 집단성폭력 재연, 1999년 성폭행 및 납치피해자 황 모 씨 수기 재연
	18:48~22:09	홍콩 성폭력 피해자 재연
	24:46~25:07	사진 촬영 장면 재연
	19:48-19:12	홍콩 집단 성폭력 재연
	47:51~48:21	중국 태권도부 성폭력 피해자 진술, 재연

3회	16:33~17:03	메○○ 수영복 촬영 재연
	18:16~20:25	메○○의 정명석 면회 재연
	27:22~28:51	피해자 메○○의 피해 재연
	29:56~31:21	피해자 메○○의 피해 재연
	34:07~34:38	피해자 메○○ 성폭력 재연
	38:59~39:51	피해자 메○○의 피해 재연

③ 진정서, 고소장, 진술조서 등 문서

〈나는 신이다〉는 진정서, 고소장,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문서 정보를 보여주었다. 화면에서는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 속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등 피해의 상세한 내용을 하이라이팅하여 강조했다.

회차	시간	내용
1회	32:07~32:43	진술인H 참고인 진술서, 진술인K 접수 진술서, 참고인J 진술서
	37:26~37:53	C 진정서, K 친필 고소장, N 진술조서
	47:47~48:11	J 진정서, S 모 씨 신문조서, 1999년 성폭행 및 납치피해자 황 모 씨 진술조서
	48:29~49:15	성폭력 피해자 이윤주(가명) 피해증언, G 진술조서
2회	10:19~10:35	성추행 피해자 폭로 수기(현대종교 1984년)
	11:09~11:23	L 모 씨 진술서, S 모 씨 신문조서

〈나는 신이다〉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해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성폭력의 범죄적 요인보다 성애적 요소를 강조하고, 그 결과 성폭력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거리로 만든다. 또한 구체적 범죄행위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포르노’를 연상케 하며 시청자의 관음증을 자극한다.⁶⁾ 이처럼 성폭력 사건을 ‘볼거리’로 만들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타자화하여 성폭력이 일상적인 문제라고 감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갈 문제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나는 신이다〉의 ‘선정성’의 실증적 근거를 살펴본 것으로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류버리 활동가의 발표와 토론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같음한다.

2. 미디어가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필요한 것

미디어는 성폭력을 감각하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다양한 방식의 원칙을 세워왔다. 성범죄 보도에 관한 법률 규제는 방송심의규제와 피해구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⁷⁾ 방송심의규제는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⁸⁾을 따르고 있고, 2019년 9월 성폭력·성희롱 사건 등 범죄 사건과 관련된 자극적인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의기준이 별도로 신설됐다.

한국기자협회⁹⁾는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와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¹⁰⁾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문윤리실천요강」,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각 언론사의 「취재준칙」, 「방

6)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홍지아, 2009)

7) 성범죄 보도 관련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국가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568호, 김여라)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규정

9)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언론단체

10)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은 2022년 한 차례 개정됐다.

송강령,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원칙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에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①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실천요강」
1.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4.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7.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 하에 보도한다.
8. 언론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9.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 선정적 자극적 보도는 지양해 주세요.
•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는다.
•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실명 및 얼굴을 공개하거나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보도방식을 고민한다.
•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방식은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방식은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분과 얼굴을 공개하기보다 취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언론은 피해자에게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방식을 중용해서는 아니 되며,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전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고 방송에 적합한 표현 및 묘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질문 및 답변 내용을 점검하여 가십성 이슈로 소모되지 않도록 한다.
-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 상태를 자세히 보도할 경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높고, 일반인들에게도 성희롱·성폭력은 극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 언론은 피해자가 SNS 등을 통해 알린 피해상황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보도하기에 적절한 묘사수위를 고려하고 표현을 정제하여 보도한다.
 -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은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실명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다.
 -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나약할 것이라는 편견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빨리 치유하는데 악영향을 주며, 그렇지 않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의심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 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부적절한 삽화, 영상 등을 사용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표현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등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는 삽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건을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삽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영상 보도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 범행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범행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아야 하며,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범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연하거나 실제 영상을 보도하지 않는다.
 - 영상 보도에 사용되는 자료화면 구성의 경우 취재 기자 1인이 아니라 촬영 기자나 편집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므로, 선정적 영상 보도를 막기 위한 공동의 주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

3. 넷플릭스와 MBC의 책임성

원칙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나는 신이다>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넷플릭스라는 OTT¹¹⁾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OTT)는 법으로 규정된 방송이 아니므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보도 관련 기준을 기사, 뉴스에 한정된 것으로 본다면 다큐멘터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TT에도 저널리즘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나는 신이다>를 보고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왜 MBC가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나?'였다. 사실 '넷플릭스'는 당연한 선택이기도 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OTT 서비스 플랫폼별 이용행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유튜브(94.1%)를 제외하면 넷플릭스(31.2%)가 가장 높다. MBC의 경우 시청률은 2010년 5.7%에서 2020년 2.3%로

11) Over The Top의 약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하락했고, 프로그램 제작비도 줄여가고 있다고 한다.¹²⁾ 시청률과 이용자를 정확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체감적으로 MBC보다는 넷플릭스를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제작비도 투자를 받고 제작환경도 유연하다면 제작자에게 OTT는 매력적인 플랫폼일 것이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또한 넷플릭스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MBC에서는 방송됐다면 앞서 문제로 지적했던 장면들은 방송되지 못했거나 더 많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방송의 한계라기보다는 콘텐츠에 적용될 필요가 있었던 중요한 원칙이다. MBC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원칙이라면 OTT 콘텐츠에도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OTT에 이러한 저널리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OTT 콘텐츠를 방송의 영역으로 포괄할 수도 있고, 방송과 OTT 모두를 포괄하는 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 OTT가 미디어 산업에서 주류가 되어가면서 미디어 정책 논의 안에서 OTT와 관련된 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OTT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OTT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17일 출범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는 ‘최소규제원칙을 적용해 기성 미디어(방송)와 OTT 등 규제 완화’를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최근 OTT 콘텐츠의 등급을 OTT 사업자 스스로 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기존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OTT 사업자에 방송영상콘텐츠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OTT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OTT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함께 넷플릭스의 자율규제 원칙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를 준비하면서 넷플릭스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찾아보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만들어져야 하고, 있다면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준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원활한 통로도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작진에게 자율규제 원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MBC의 고민도 필요하다. 박성제 전 MBC 사장은 2월24일 <피지컬:100>의 성과를 짚으며 “MBC는 지상파 채널을 소유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다”라고 말했다. 기존 지상파 중심 운영에서 글로벌 OTT로 타격을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¹³⁾ <피지컬:100>, <나는 신이다>와 같이 MBC에서 제작되고 OTT를 통해 콘텐츠를 공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콘텐츠의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작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나는 신이다>의 경우 MBC의 저널리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진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MBC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신이다>를 계기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저널리즘 원칙 등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12) 지상파 3사 매출액서 MBC 비중 감소 (미디어스, 2022년 10월 12일)

13) MBC와 넷플릭스의 협업이 남긴 질문 (시사IN, 2023년 3월 31일)